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제 1독서] 여호 5,9-11.10-12
[화답송] 시편 34(33),2-3.4-5.6-7(◎ 9-)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제 2독서] 2코린 5,17-21
[복음 환호송] 루카 15,18 참조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복음] 루카 15,1-3.11-32

성가	8시 미사 11시 미사	입당 123 입당 123	봉헌 215 봉헌 216 510	성체 178 성체 160 174	파견 490 파견 489
----	-----------------	------------------	----------------------	----------------------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사순 제 4주일(3월 10일)		사순 제 5주일(3월 17일)		주님수난성지주일(3월 24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글라라(순희)	조레지나(선덕)	김안토니오(휘)	이마리크레센시아	이바로로(명국)	황테레사(혜정)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이안드레아(영길)	김안드레아(찬곤)	이요한(세호)	최분도(환준)	심미카엘(태규)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김테레사(승희)	김글라라(순희)	이골롬바(정연)	임루카(승원)	백헬레나(승화)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수난복음					김안토니오(휘)	정요한(석준)
					정스텔라(애리)	손리디아(정옥)

오늘의 강론

아버지의 집으로

세상에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뉘우치는 의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바로 스스로 의인인 체 착각하는 죄인들이며, 그들이 죄인이라고 단죄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의인인 셈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아무런 격의 없이 어울리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군.”하며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몫으로 돌아 올 재산을 나누어달라고 떼를 써서 돈을 받아들고 먼 고장으로 가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돈을 모두 탕진하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루카15,18-19)라고 고백합니다. 한편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멀리서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성대한 잔치를 열어줍니다. 보통의 아버지 같았으면, 작은아들을 다시 내쫓았겠지만 하느님으로 상징되는 아버지는 작은아들의 모든 잘못을 일축하고 다시 환대해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뉘우치는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기에 참으로 다행이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한편 아버지의 자비로운 처사를 보고서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영소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라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어쩌면 큰아들의 불평은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을 설득하며 타이릅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결국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어느 한 쪽을 편드는 분이 아니시고 모두를 받아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부른 판단을 하기 보다는 큰 아들이나 작은아들은 모두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는 사실도 깨달아 더 늦기 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주일학교 소식

1. 3월 10일(오늘)

- 주일학교 11시
- 영어미사 12시 반(Fr. Arjen Tete, SJ)

2. 교사 소개 : Christine Puthoff 선생님(3rd/4thgrade)

Hi! My name is Christine Puthoff and I'm a sophomore at UC Berkeley. I am currently teaching 3rd/4th grade with Stephanie Byun. This is my first year teaching at Oakland but I have helped out with the Sunday School program at one of my previous churches before. I've always loved helping out with my current community which is part of the reason I decided to start teaching here. This year teaching has been a great blessing for me not only being able to share the Catholic faith with the children but also to remind myself to more actively seek the Catholic faith for myself. I hope that this will help me to grow and continually become a better teacher and I look forward for the rest of this year and the years to come.

3. 피정 및 외부 행사

- High School : Oakland 교구 청소년 행사 안내
 - i. 행사명 : Ignite the Fire of Faith - Youth Day 2013
 - ii. 일시 : 2013년 3월 16일(토요일), 10am - 5 pm
 - iii. 장소 : Bishop O'Dowd H.S., 9500 Stearns Ave., Oakland, CA
 - iv. 참가비 : \$25/명: 청소년부에서 \$15/명 지원

4. 주일학교 고해성사(영어)

- 3월 17일 주일 주일학교 수업 시간 중(11~12시)
- 영어미사를 주관해 주시는 Arjen 신부님께서 성사를 주십니다.

5. 부활절 맞이 주일학교 행사

- 3월 30일(토요일) 12시
- 대상 : 주일학교 전 학생
- 12시 : 학부모회에서 점심 제공
- 1시부터 : egg hunt, Easter egg장식, 기타 게임

6. 영어미사 독서자 모집(1~8학년)

- 1학년에서 5학년 사이의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은 주일학교 교사 혹은 청소년 부장에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말씀

하느님의 더딘 징벌과 무디어지는 우리 양심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루카 13,5) 물론 우리들의 경험에 따르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즉시 벌을 주지도 않으셨고 우리의 회개가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더딘 징벌이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되거나 안심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오늘 제1독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여호 5,12)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며 울부짖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없이 여기시어 모세를 시켜 구해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진노하시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 가나안 땅에서 구원의 은총을 상징하는 첫 소출을 먹기까지 4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내하시어 그들을 당장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지만,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결코 그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작은아들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며 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루카 15,18)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달라는 작은아들을 마주한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시고 큰 잔치를 열어 주십니다.

이렇게 작은아들은 밑바닥까지 떨어져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함으로써 고통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아버지의 사랑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민족과 즉시 아버지께 돌아와 죄를 고백한 작은아들 중, 누가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어쩌면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민족과 큰아들이 같은 부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보으에서 크나큰 아버지의 과대

한 처사에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게다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아버지의 위로의 말에도 큰아들은 시큰둥합니다.

사실 우리는 큰 죄를 지으며 살지 않는다고 마치 하느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의인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에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회개도 지연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회개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2코린 5,19) 만드셨다고 언급합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느님의 본심은 우리가 당신과 화해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후한 처사에 양심이 무디어지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후한 처사에 반감을 갖지 말고,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 합시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루르드의 선물

말씀의 향기

어릴 때부터 류머티즘을 앓았습니다. 그것이 허리까지 번져 누워서 몇 달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면서 ‘설마 이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겠지.’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살짝 들어보았지만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고 씹지도 못하면서 눕고 회복하기를 몇 년간 반복하다가 기어이 제 허리는 망가져 버렸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아 구부린 채 살아야 했고 척추뼈는 안으로 밀려들어 갔습니다.

너무 아파서 걸을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만화는 그려야 했습니다. 동생이 저를 의자에 앉혀 화판을 걸쳐주면 저는 만화를 그렸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으면 동생이 저를 일으켜 손을 잡아 주어야만 겨우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니 저는 이 통증을 운명이라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 바오로 수도회에서 “내 친구들”이라는 만화잡지를 내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수사님께서 루르드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광선이 있었습니다.

‘루르드의 성수를 바르면 낫는다.’ 그 자리에서 저는 수사님께 성수를 달라고 졸랐습니다. 수사님은 손가락만 한 성모님 모양의 병에 딱 세 손가락 정도의 성수를 담아 주었습니다.

그 성수를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어머니께서 성수를 뿌린 거즈를 제 허리에 대 주었습니다. 성수를 뿌린 거즈는 그 순간 뜨거워졌고, 참을 수 없다 싶으면 다시 식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뜨거워지기를 반복하면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쯤 반복되다가 통증은 허리에서 다리를 타고 발가락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고, 걸어보면서 다 나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 번은 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권유대로 저는 루르드 성수를 묻힌 거즈를 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훗날 병원에서는 당시의 제 증세를 듣고, 그것은 류머티즘이 아니고 각질성 천초염으로 국가부조까지 받는 드문 병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아프다가 갑자기 나아다는 기억만 남아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까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적은 처음이었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저는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믿으려 했던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루르드의 선물을 받은 후, 저는 그토록 온전한 믿음을 다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감사한가 봅니다. 주님께 받을 것이 있을 때만 믿고, 다른 때엔 모든 것이 다 내 힘이라고 착각하고 사니 말입니다.

황미나 아가다
만화가

머무름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에 봉사하는 일은 모든 사람의 임무입니다.

이러한 임무는 특히 생명이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을 때 이행되어야 합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이방인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갇힌 사람들 이들에게 해 준 것은 그리스도께 해 드린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칙령 43항 -

가톨릭전례

단식의 의미와 실천, 가톨릭에서 바라보는 단식

이마에 재를 얹는 예식으로 시작, 40일간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회개와 보속의 시기 '사순시기'가 시작됐다. 사순시기를 맞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참회 행위인 '단식'에 대해 알아본다.

단식(斷食)은 동서양의 종교 속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수행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음식섭취를 끊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도 단식의 근본적인 정신은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바 없으나, 특별히 가톨릭교회에서의 단식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참회 행위로 여겨진다.

한국가톨릭대사전은 단식에 대해 "음식과 음료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행위"인 동시에 "은총의 순간이고 덕을 강화시키며 기도하는 삶과 평온의 원천"이라고 정의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전례헌장 110항'을 통해 단식 실천을 권위 있게 요구한다. 즉 파스카적 단식 계명을 공포하면서 사순절의 시작과 성금요일, 그리고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성토요일에 실행하도록 선포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규정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60세까지의 모든 신자들은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금식재를 지켜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단식의 방법도 과거에는 단식일에 두 끼는 금식하고 한 끼만 가벼운 식사를 허용했으나, 오늘날에는 통상 한 끼만 금식하고 두 끼의 가벼운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는 신자들 각자가 나름대로 자신의 죄를 보속하는 정신으로 절제와 희생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또한 과거에는 단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통에의 동참을 지향했으나, 오늘날에는 이뿐만 아니라 단식으로 절약한 것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나눈다는 점에서 단식의 진정한

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단식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이들은 노약자나 임산부, 환자나 중노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특별히 허락받은 사람 등이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단식은 건강을 위해 행하는 일반 단식이나 체중 감량(다이어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단식은 단순히 음식을 절제하거나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닌, 죄와 악행을 끊어버리고 하느님께 향할 수 있게 하는 극기와 참회의 행위로 거듭나야 한다. 이와 함께 기도와 뉘우침, 그리고 사랑을 동반하는 '영적 단식'이 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식은 그 고유한 의미와 동기 때문에 기도나 선행과 대체될 수는 없다. 아울러 단식은 하느님과 친교 안에서 음식에 대한 탐도로부터 생명력을 해방시키며, 육체 안에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은 하느님이심을 나타내고, 사랑의 정의의 실천을 위한 연대의 표지이다.

한편에서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 낭비를 일삼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아와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란 맥락에서도 또 다른 '단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단지 교회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도 단식의 행위는 영신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가톨릭신문 2009.03.18

날짜	지향	봉헌자
3월 10일 주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마르코(재상)	익명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구아릭스(천남)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연 서라이문도	익명
	연 한다윗(홍석)	김다윗(승우)
	연 박수경/홍정희	박데레사
	연 메첼도안토니오	서데레사
	연 이바오로의 부모님	서데레사
	연 부모님/조상님	정베드로(창희)
	생 이데이빗(지현)	김아네스(순이)
3월 12일 화	연 최베드로(취종)	가족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연 이육만 기일	가족
3월 13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영원한도움의어머니
	연 한다윗(홍석)	한수산나(서연)
	연 고아오스딩(정기)	황안나
	연 박도마 신부님	김카타리나
	생 안나회원들 건강	안나회
	생 김수산나(현숙)생일	김엘리사벳
3월 14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생 Wu아나스타시아 생일	이카타리나
3월 15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연 조베나벤뚜라	김카타리나
3월 16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3	243	60	386
헌 금	\$468	\$1,671	\$83.50	\$2,222.50
< 교무금 > \$4,874				
이정연(3) 염명련(1-2) 강수영(2) 한서연(3-4) 심연자(2-3) 전숙희(3) 김옥녀(3) 전문자(3) 김유한(1-3) 윤순의(1-2) 소명환(3-4) 윤종진(2) 정애리(1-2) 정진희(3) 변귀태(3) 김관숙(3) 박호영(3) 장희숙(1-12) 이명란(3) 채성일(1-3) 부건화(1-4) 김승희(3-4) 김미라(3) 최명숙(1-2) 황정희(3) 조우송(3) 성동화(2-3) 임윤택(3) 천종욱(3) 최윤기(2-3)				
< 성소후원금 > \$140				
전숙희(3) 소명환(3-4) 정진희(3) 박호영(3) 이명란(3) 임윤택(3) 최윤기(2-3)				
< Bishop's Appeal > \$100				
변귀태(3) 최윤기(2-3)				
< 부활초/꽃 봉헌 >				
조상희 \$100 임윤택 \$100 김영순 \$20 박영실 \$50 조선덕 \$100 신영아 \$100 김종란 \$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지난주	금 주	누 계	
약정액	\$310,715.28	-	\$310,715.28	
봉헌금	\$291,245.28	-	\$291,245.28	
*약정자 : -				
*금주봉헌자 : -				
*총 230세대 중 184세대가 약정해 주셨습니다.				
☺☺☺☺ 새로 오신 분 ☺☺☺☺				
* <u>뜨락회</u>				
홍일화 베르나뎃 ☎ 832-370-1114				
* <u>1 구역</u>				
김혁 베드로/김다빈 안젤라 ☎ 510-909-1611				
* <u>9 구역</u>				
김진 이사벨라 ☎ 925-349-5738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2차 헌금 안내

3월 10일(오늘) Catholic Relief Services(해외원조기금)

◆ 사순절 전례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부터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하고 이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 부활판공성사

사순기간 동안 매 미사 30분전에 보는 모든 성사는 판공 성사입니다.
 * 합동판공성사 : 3월 14일(목) 저녁 미사 후

◆ 영어 판공성사

대상 : 주일학교 학생, 교사, 영어권 신자
 일시 : 3월 17일 11시~12시
 장소 : 교육관 103호

◆ 부활초/꽃 봉헌 받습니다.(사무실)

◆ 부활봉성체

일시 : 3월 21일(목) 오후 2시(사무실로 신청)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성경공부 : 매월 첫째주일/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반
 - 기도모임 : 매주일 10시 ~ 10시 40분 1회의실
- * **구역장회의** : 3월 10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대건회** : 3월 10일(오늘)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 * **프란치스코회** : 3월 10일(오늘) 교중미사 후 103호실
- * **하상회** : 3월 10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평협회의** : 3월 17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사순피정 강의 CD 신청 및 신앙의 해 특강 CD 신청

* 사순피정 원음 버전 3장 - \$15, MP3 버전 1장 - \$10
 * 신앙의 해 특강(세계 교회사)을 본당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CD(2장)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0)
 접수 : 친교실 및 사무실
 연락처 : 510-703-7350

3월 구역모임 **지에서 15-16강**

6 구역	3월16일(토) 6시	이기희베로니카 덕
7-1 구역	3월23일(토) 2시	파운더스룸

◆ 가톨릭교회 교리서 통독반 모집

시작 : 5월부터
 신청 : 3월 24일까지 친교실에서 접수
 문의 : 전교부 510-703-7350

◆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일일피정

일시 : 3월 16일(토)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장소 : Presentation Center, Los Gatos
 주제 :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코린2, 5:7)
 강사 : 황선기 마티아 신부님, 최동원 베드로 교육부장
 참가대상 : 각 본당 성령기도회 임원, 기도회원 및 전신자
 참가비 : \$25
 신청 및 문의 : 천종욱 다니엘 510-684-7207

◆ 북가주 ME 25차 첫 주말

일시 : 7월 5일(금) ~ 7월 7일(일) 2박 3일
 장소 : 산다미아노 피정센터(댄빌 소재)
 문의 : 한치용 요셉 415-810-3175

◆ 사순피정을 위해 점심을 마련해 주신 성모회와 찬미를 이끌어 주신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 청소해 주시는 Vicente 형제님께서 3월 29일까지 휴가입니다. 성당 청결 유지에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국학교 소식

- * 3월 17일(일) : 한국어 SAT 모의고사
- * 3월 23일(토) : 교내 구연동화 대회, 교사연수
- * 3월 30일(토) : 휴교(부활절)